



산업부·방사청, 첨단 항공엔진 개발 준비 본격 착수

- 차세대 전투기 엔진 국산화를 위한 민·관·군 협력 방안 등 논의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방위사업청(청장 석종건, 이하 방사청)과 3.5일(수)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첨단 항공엔진 개발 T/F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 이번 회의는 첨단 항공엔진 개발 실행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,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주요 엔진 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(ADD), 국방기술진흥연구소(KDIT)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(KEIT) 등 정부출연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.

* (주요 참석자)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, 정재준 방사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, 김원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첨단엔진사업단장, 고민석 두산에너지빌리티 상무 등

첨단 항공엔진 기술은 차세대 전투기와 고성능 무인기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이며, 독자적인 국산 전투기 수출, 유지 비용 절감, 국부 유출 방지 등 다각적 측면에서 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.

산업부는 지난해 12월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(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)」에 따른 「국가첨단전략기술」에 첨단 항공엔진 소재·부품 기술을 신규로 추가하고,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설립,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, 기반 구축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.

방사청도 지난 1월 26일 「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」에서 「첨단 항공엔진(16,000 lbf(파운드포스)급) 개발 기본계획(14년간 3조3500억원 소요 예상)」을 확정하고,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 개발을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일정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.

이번 회의에서 산업부와 방사청은 범부처 대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단 설립 등 다각적인 협업방안을 논의하였으며, 관련 업계에서는 핵심 기술 및 인프라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였다. 산업부 관계자는 “첨단 항공엔진은 첨단소재, 정밀가공, 전자제어 등 고도화된 기술의 집약체이고 안보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기술인 만큼,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시급한 핵심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 등을 업계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제조산업정책관 첨단민군혁신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박지운 (044-203-4150)
		담당자	서기관	임형남 (044-203-4157)
			사무관	강진석 (044-203-4154)
			사무관	이순호 (044-203-4152)

□ 행사 개요

- (목적) 「국가첨단전략기술」에 첨단 항공엔진 기술 추가 지정('24. 12월) 계기, 관계 기관 간 협업 방안 논의 및 업계 의견 수렴
- (일시/장소) '25.3.5.(수) 10:00~11:30 / 대한상의 KEIT 회의실(8층)
- (참석 기관(참석자)) 산업부(제조산업정책관), 방사청, 엔진 기업 등
 - (방사청) 미래전력사업본부 첨단기술사업단장(국장급)
 - (연구소/기업 등) 국방과학연구소(ADD), 국방기술진흥연구소(KDIT),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두산에너빌리티 임원, KEIT(실장급) 등

□ 주요 메시지

- ① 「국가첨단전략기술」에 첨단 항공엔진 소재·부품 기술 추가 지정 ('24.12월, 산업부) 후속 조치로, 관련 지원 방안 실행계획 수립 착수
- ② 「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」 의결('25.1월, 방사청) 계기, 민군 (방사청, 산업부 등) 협업 착수
- ③ 항공엔진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지원 방안 등 구체화

□ 세부 일정 및 주요 내용

구분		주요 내용	비고
10:00~10:05	5'	▶모두 발언	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, 방사청 첨단기술사업단장
10:05~10:15	10'	▶방사청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 사업 계획	미래도전기술사업팀 (미래전력사업본부)
10:15~10:25	10'	▶산업부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 개발 방향	첨단민군혁신지원과, /KEIT
10:25~11:25	60'	▶향후 사업 추진 관련 의견 교환 및 업계 간담회	산업부, 방사청, 기업 관계자 등
11:25~11:30	5'	▶마무리 발언	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, 방사청 첨단기술사업단장